

“광주FC 1부에서 우승하는 팀으로 성장하길”

기영옥 광주FC 단장 사의 표명 “물러나야 할때”
 “1부 승격 전용구장·연습구장 건립 목표 다 이뤄”
 연봉 유소년 축구단 기금 조건 5년 무보수 봉사

“1부리그 승격, 전용구장 건립, 연습구장 마련, 광주FC 단장으로서 목표했던 것을 다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 과욕불급이다.”
 기영옥 광주FC 단장(62)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5년 4월 단장으로 선임된 지 5년 만이다. 기 단장은 지난 달 25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정원주 대표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기 단장은 4일 “2부리그로 강등됐을 때 2년 안에 승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이뤄졌다. 당시부터 1부리그로 승격하면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26살 때부터 지도자를 해왔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인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성용(뉴캐슬)의 아버지로도 더 유명한 기 단장은

명한 기 단장은 금호고, 광양제철고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온 축구인이다. 기 단장은 광주시축구협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각오로 단장직을 맡았다. 고향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 축구팀 창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던 그는 단장을 맡으면서 연봉(7,000만원)과 업무주진비(2,400만원) 등은 유소년을 위해 써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그동안 무보수로 일했다.

기 단장은 “경기를 앞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 당일에는 증조부를 모신 임곡을 매일 들러 ‘기운을 주시라’며 기원하기도 했다”며 “올해 부산과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승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19경기 무패 행진을 하면서 우승하고 승격까지 이룰 수 있었다.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단장은 광주FC 운영을 맡는 동안 수많은 기록을 이끌었다. 단장 첫해였던 2015년 클래식 정규리그 10위를 하며 승격팀 최초 잔류 기록과 팀 창단 최다승점(21승 73점), 첫 우승의 기록을 선수단, 프런트와 함께 만들었다. 이어 “1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야 하는 팀이기에 책임자가 인수도 생각하는 등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며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역사는 짧지만 올해 시민에 희망을 심어줬다. 앞으로도 희망을 주는 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을 하며 시민구단 최초로 MVP(정조국)를 배출했다. 2017년은 정규리그 12위를 하며 2부리그로 강등됐지만 지난해 박진섭 감독을 영입, K리그2 5위와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고 MVP(나상호)도 나왔다.

올해는 더욱 많은 기록을 남겼다. 축구전문경영자 건립과 함께 구단 통산 100승, 첫 6연승, 19경기 무패행진, 구단 최다승 및 최다승점(21승 73점), 첫 우승의 기록을 선수단, 프런트와 함께 만들었다.

기 단장은 “광주FC가 계속 1부리그에 잔류해서 우승도 하고 아시아챌린지 스타리그도 나갈 수 있는 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 사장님, 그리고 이하 여러 윗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런트도 열려있는 사고로 팀을 돕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야 하는 팀이기에 책임자가 인수도 생각하는 등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며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역사는 짧지만 올해 시민에 희망을 심어줬다. 앞으로도 희망을 주는 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 광주시민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기 단장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할 일은 여기에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은 정원주 대표이사”라며 “그분 때문에 프로에 왔고 인간적으로 정도 들었다. (사표를) 많이 만류하셨지만 제가 그 뜻을 못 따르고 가게 됐다”고 밝혔다.

기 단장은 “1부리그에서 대구FC와 경기에서 지면서 강등이 확정됐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구와 대결을 해서 이기고 싶었는데 못해보고 떠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광주FC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남겼다.

기 단장은 “만약 다시 2부로 강등된다면 또 다시 1부로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 이제 2부리그에 기업구단 팀들이 많이 내려와 경쟁이 쉽지 않다. 내년에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프로팀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유소년은 광주의 미래다. 유소년들을 잘 성장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 '2019 장애인체육인의 밤' 정현정 등 15명 체육진흥상

광주시는 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선수 및 장애인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광주 장애인체육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탁구, 사격 등 9개 종목 22개 국제대회에서 총 6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광주 장애인체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장애인체육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해 한국 신기록 및 금메달(3관왕)을 획득한 정현정(역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지도자 15명이 체육진흥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올 한 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지원한 가맹단체, 자원봉사자, 우수직원 등 30명에 대해서도 상패와 상장이 전달됐다. /최진화 기자



설원의 질주 미국의 미카엘라 시프린이 4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엘버타주 레이크 루이스에서 열린 여자 알파인스키 월드컵 공식훈련에서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USA투데이=연합뉴스

금호고 최수용 감독 유럽 연수 선진클럽 유스 시스템 벤치마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각 구단 유소년 지도자 34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에서 ‘2019 K리그 유스 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실시된 ‘K리그 지도자 해외연수’는 올해로 7회째다.

이번 해외연수는 유럽의 선진클럽 유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K리그 유소년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맹은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수 인원을 3개국에 분산 파견해 능동적 학습환경을 조성했고, 창의력 향상, 훈련 주기화 방안 등 명확하고 개성 있는 주제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금호고 최수용 감독 등 지도자들은 영국 토트넘, 포르투갈 스포르팅 SC,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역 축구학교인 스마트 풋볼 등 체계적인 유스시스템을 갖춘 프로구단 및 아카데미를 방문, 훈련 및 경기 진행 과정을 참관하며 현지 지도자들과 토론 세션도 진행했다.

특히, 토트넘 핫스퍼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영국 연수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토트넘 구단의 분야별 담당자로부터 신체·기술적 발전방안, 토트넘 유스팀의 훈련 발전방안 등 이론 강의를 듣는다. 아울러 지도자들은 일일 연수내용을 정리·토론해이를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부활인가 추락인가...부산vs 경남 ‘낙동강 데비’

K리그2 부산-K리그1 경남 5·8일 승강PO 혈전 예고

2015년 프로축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해 2부리그로 추락한 뒤 4년 동안 승격의 갈을 갈아온 부산 아이파크가 경남FC와의 ‘낙동강 데비’를 통해 5년 만의 1부리그 승격에도 도전한다.

부산과 경남은 5일(오후 7시·부산구 덕운동장)과 8일(오후 2시·장원축구센터) 펼쳐지는 하나원큐 K리그 2019 승강 PO 1, 2차전을 통해 내년 K리그1 무대에서 펼 주인공을 결정한다.

부산은 2015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11위에 그친 뒤 수원FC와 승강 PO에서 패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2부리그에서 머물렀다.

부산은 2017년과 2018년 승강 PO에 연속 진출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K리그2에서 2위를 차지한 부산은 플레이오프에서 FC안양의 도전을 이겨내고 3년 연속 승강 PO에 올라 5년 만의 1부 복귀에 도전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경남은 지난해 K리그1 무대에서 준우승까지 이뤄내며 승강



부산 이동준

구했지만 이번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1을 병행하는 강행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11위로 추락해 승강 PO로 밀렸다.

경남도 부산처럼 2부리그의 쓰라림을 경험했다. 2014년 K리그 클래식에서 11위에 그



경남 쿠니모토

친 경남은 광주FC와 승강 PO에서 탈미를 잡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2부리그에서 보냈다.

경남은 2017년 K리그 챌린지(2부) 우승으로 4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해 2018년에는 2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2부 리그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산과 경남은 이번 승강 PO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뿐이다.

운명의 승강 PO를 앞두고 팀 분위기는 부산이 경남보다 나은 편이다.

부산은 올해 K리그2에서 2위로 PO에 진출해 안양을 1-0으로 꺾으면서 승강 PO 진출권을 확보했다. 지난 2년 동안 연거푸 승강 PO에서 탈미를 잡힌 터라 부산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는 경남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크게 밀린다.

경남은 38경기를 치르면서 43득점(경기당 1.13골)에 실점은 61골(경기당 1.60 실점)이나 내줬다. 1부리그와 2부리그 팀의 격차는 있었지만 경남의 득실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승강 PO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 지표에서는 2부리그 팀이 앞설 수밖에 없어서다. 2017년과 2018년 부산이 승강 PO에 모두 진출했지만 상주와 서울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산이 4년 동안의 2부리그 생활을 청산할지, 경남이 K리그1 생존권을 지켜낼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학교 축구부 이종민(2년)이 4일 학교 접견실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김혁중 총장에게 500만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축구부 이종민 발전기금 약정서 전달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1 성남FC 입단을 앞둔 광주대학교 축구부 이종민(2년)이 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종민은 4일 학교 접견실을 방문, 김혁중 총장을 예방하고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광주대 축구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이종민은 2019 KUSF 대학축구 U-리그 6권역 우승과 광주시 축구협회장기 3년 연속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볼 트래핑과 드리블, 스피드와 헤딩력을 갖춘 만능 공격수로 평가받으면서 프로행을 확정했다. 올해 대학리그에서 12경기 12골로 무서운 득점력을 선보이며 득점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광주대 김혁중 총장은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몸 건강하고 성실하게 훈련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선수들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진화 기자